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장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현재 도쿄나 오사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 월에는 50 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다시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으로서는 20 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 세대에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중노년 세대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에게 확산이 염려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대로 감염이 퍼지면 필요한 사람이 의료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염 방지책은 물론 경제를 정체시키는 것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8 월 6 일) 개최된 긴급 의회에서 제 6 탄이 되는 코로나 대책 관련의 보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PCR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한 “지역외래·검사센터”의 설치를 비롯하여 보육료의 환부나 초중학교 부재중 가정 아동회실에서 사용하는 소독액의 구입 등 전부 15 사업 총액 약 26 억엔이 됩니다.

이 안에서 이번에 저로부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1 명 3000 엔의 쿠폰권을 시민 전원에게 배포합니다. 코로나 불황이 장기화하는 중 시내의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감염 축소기에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 대책의 하나입니다만 실은 감염 확대 방지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쿠폰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오사카부가 임하고 있는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시내의 감염 예방책은 진행되고 있게 되어 시민의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게 시내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어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서는 꼭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가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자의 여러분께서는, 쿠폰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대처에 찬성해 주시고이 기회에 꼭 등록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지지 않는 히라카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갑시다. 반드시 넘을수 있다 ,코로나의 앞으로 !

레이와 2년 8월 6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